

# 지난해 검사실적 16% 증가

## 有害 病害虫 2천1백여건 발견

우리나라는 지난해 80여개국과 식물을 수출입하였고 검사 총실적은 '79년의 25,933건에 비해 16%가 증가한 30,000건에 이르며 해충발견건수는 1,500회, 평균발견건수는 629회로 밝혀졌다.

이같은 사실은 국립식물검역소에 의해 밝혀졌는데 수입식물의 검사결과 묘목, 구근류의 35%, 종자류 17%, 곡류 19%, 채소류 95%, 목재류 92%, 착유박·섬유류 및 유료류의 34%에서 유해병해충이 발견되어 소독처리되었으며 묘목 및 구근류, 과실 및 채소류등 수입식물의 0.1~0.5% 정도가 폐기되었다.

소독방법으로는 곡류 및 목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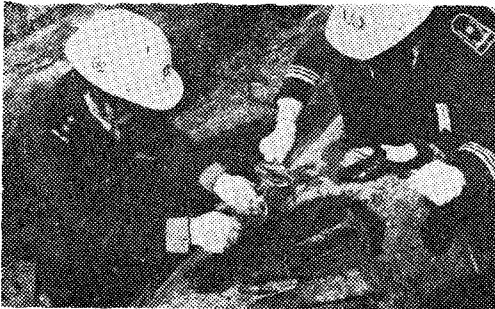
류에는 주로 훈증소독이 실시되었고 기타식물은 농약제에 의한 분의, 살포 및 침지소독등이 이루어졌다.

우리나라는 지난해에 곡류, 과채류, 음료류, 착유박 및 기타등 kg단위로는 5,727천톤이 수입되어 전량에 검역을 실시, 이중 19%에 해당하는 1,088천톤이 소독처리되었다.

한편 우리나라가 지난해 수출한 식물은 과채류, 착유박, 잡화 및 기타등 kg단위로 98천톤, 묘목 및 잡화등 개수단위는 15,495천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0.9%, 19.7%가 각각 소독이 실시되었고 특히 묘목과 잡화등은 4.7%가

불합격 처리되었다.

검역결과 해충발견건수는 총 1,500회로 전체 발견해충의 81%에 해당하는 1,217건이 말레이시아, 미국, 인도네시아 및 일본등 4개국에서 수입하는 식물에서 발견되었다.



◇ 검역소 직원들이 검역활동을 벌이고 있다.